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2012.07.17

[뉴스풍경] 22 년 만에 '평양말 성경' 펴낸 김현식 교수

장양희



비영리법인 '워싱턴 평양 성경연구소(WPBI)가 최근 평양말 성경'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을 발간 했는데요, 38 년 동안 평양 김형직 사범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다 한국으로 망명한 김현식 교수의 오랜 꿈의 첫 결실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평양성경연구소 대표 김현식 교수 사택에 마련된 평양말 성경 만들기 연구팀의 책상엔 각종 사전과 성경 자료 등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미국 성경 'The Net Bible'을 자원 봉사자들이 초벌 번역한 뒤 김현식 교수의 검수를 거칩니다.

평양말 성경 집필과 출판을 목적으로 '워싱턴 평양성경연구소'가 비영리단체로 미 연방과 버지니아 주정부에 비준,등록되기까지 15 년 그리고 번역 저작권을 얻기까지 5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70 여명 자원 봉사자들로 시작된 '평양말 성경 만들기'는 지금까지 언어학자,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 등 전문가와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김현식 교수가 22 년 전 품었던 소망의 씨앗이 비로소 싹을 틔운 것입니다.

[녹취:김현식 교수] "1990 년 러시아에서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저에게 성경책을 줬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 신약하면 새로만든 약은 아닌가.레위기는 레 라는 사람이 위기에 처했구나.. 대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겠는데 어학 교수인 내가 모르니까 북조선에서 알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때 결심했죠."

김현식 교수와 함께 매일 10 시간씩 평양말 성경 만들기에 열정을 쏟아 부은 류정우 사무장.

[녹취:류정우 사무장] “북한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몰랐구나. ..1960 년 북한의 언어혁명에 따라 러시아문법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북한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방식 자체가 러시아말을 하는 것이죠. 북한말에서 음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 어투로 끝까지 다 같이 읽고. 음율상 문제는 없나까지 고려했습니다.”

‘워싱턴 평양성경연구소’가 발간한 평양말 성경은 이해하기 쉽고 소리내 읽기 편하다는 평을 얻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으로 말을 바꿨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이야기 라는 의미로 ‘예수 후편’으로 표기했습니다.

올해 여든을 넘긴 김현식 교수는 요한복음의 평양말 번역본이 출간 됐을때 심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녹취:김현식 교수] “이게 첫 발자국이다.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하시겠다..(흐느낌) 한국과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빨리 북녘땅에 들어가서 가슴을 울려주는 핵탄이 되서 ..”

기독교 성경을 아편이라고, 또 선교사나 교회를 침략의 전초병으로 여기는 북한주민들의 인식을 생각하면 김현식 교수의 북한선교에 대한 꿈은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북녘땅에 기독교가 전파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녹취:김현식 교수] “북조선 전체가 신자들입니다.김일성 따르는.다 모태신앙이죠. 김일성 모시는 예배체계에 이틀에 한번씩 비판을 하고. ... 기독교를 고대로 옮겨 냈다. 꼭 이뤄지리라 확신합니다.”

워싱턴 평양성경연구소는 향후 5 년 안에 기독교 성경 66 권을 모두 번역한다는 목표아래 평양말 성경 만들기의 두번째 작품인 ‘누가복음’번역을 막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장양희 입니다.

Voice of America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418146.html>